

고용노동부 -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 지원(중소기업탐방)

<사업 기본정보>

- 사업유형/세부유형 : 고용서비스사업/역량강화
- 소관부처/담당부서 : 고용노동부/공정채용기반과
- '21년 평가등급 : 성과등급 미산출 사업

1 사업 주요 내용

- ☐ (사업 목적) 청년에게 우수 중소·강소기업 체험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에 대한 인식제고 및 원활한 노동시장 이행을 지원
 - 직무내용 소개 등 사전교육 + 기업에서 체험기회 제공(총 1~5일)
- ☐ (사업내용) 강소기업·우수중소기업 등을 방문하여 시설견학, 회사소개, 인사담당자 특강, CEO 특강, 채용설명, 직원과 대화 및 현장 체험 등 진행
 - 참여청년 1인당 1일 평균 13.5만원 내외 운영비 지원
 - * 1~2일 과정 1일 10만원, 3~5일 과정 1일 17만원 지원(30% 내외 편성)
- ☐ (예산/재원) 2,972백만원('21년) /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

사 업 명	'20년			'21년 예산(B)	증감(B-A)	
	본예산(A)	추경	결산			(%)
<input type="checkbox"/> 청년취업진로 및 일 경험지원 (중소기업탐방)	2,972	-	2,965 (100%)	2,972	-	-

- ☐ (추진근거) 고용정책기본법 제25조(청년 등의 고용촉진지원),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8조의 2(청년에 대한 직장체험 기회제공)

□ (주요 지원대상) 만 15~34세 미취업청년

□ (전달체계) 운영기관 선정(지방관서) → 사업운영 관리(지방관서) → 운영기관 성과평가(한고원) → 사업비 정산(지방관서)

□ (전년 대비 주요 개편사항)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내실화를 위해 비대면 탐방 병행 추진

2 정량지표 평가 결과

□ (참여자 현황) 중소기업탐방 사업의 2020년 참여자는 총 6,324명으로 고용서비스 전체 참여자의 0.5%, 역량강화 유형 전체 참여자의 2.8%

- (성별) 본 사업 참여자 중 남성은 39.6%(2,504명), 여성은 60.4%(3,819명)로 여성 참여자의 비율이 높음

- (연령별) 본 사업의 참여자 중 청년이 99.7%(6,305명)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중년 0.2%(15명), 장년 0.0%(3명) 순으로 나타남

(단위: 명, %)

	전체	성별		연령별			
		남성	여성	청년 (15~34세)	중년 (35~54세)	장년 (55~64세)	고령 (65세이상)
고용서비스 전체	1,325,058 (100)	463,784 (35.0)	861,144 (65.0)	538,237 (40.6)	383,290 (28.9)	299,872 (22.6)	101,177 (7.6)
역량강화 전체	228,518 (100)	97,677 (42.7)	130,837 (57.3)	119,895 (52.5)	44,845 (19.6)	51,029 (22.3)	12,745 (5.6)
중소기업탐방	6,324 (100)	2,504 (39.6)	3,819 (60.4)	6,305 (99.7)	15 (0.2)	3 (0.0)	0 (0.0)

주1: 성별, 연령별로 분류불능이 존재하여 각 비율의 합은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음

3 정성지표 평가 결과

- 사업의 중요성 측면에서, 중소기업 탐방은 다양한 직업을 찾을 수 있는 방향제시 프로그램으로 궁극적으로 인력 미스매치 해소를 통해 원활한 노동시장 이행 지원에 중요
 - (청년 고용상황) 최근 청년 실업률·고용률 등 고용지표 부진이 계속되고 청년고용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음.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고용상황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휴학이나 졸업유예 등 첫 일자리로의 이행 기간은 계속 늘어남. 특히, 공무원이나 대기업 위주의 일자리 쏠림현상, 전공직장 간 불일치가 발생하여 중소기업 인식 제고와 원활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 지원이 요구
 - (내역사업목적) 만15~34세 미취업자 대상으로 우수 중소기업 현장 탐방 및 정보제공을 통해 산업현장을 이해하고, 우수한 강소·중소기업에 대한 인식개선 및 직무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청년층의 취업을 지원
- 일자리사업 성과 측면에서, 중소기업탐방은 중소기업 인식 제고를 향상시키고, 중소기업 취업률 제고에 긍정적 효과를 미침
 - (프로그램 참여) '20.12월 기준 6,015명이 탐방 프로그램에 참여. 호텔관광, 제약바이오, 금융분야 등 30개 운영기관에서 220개의 프로그램을 운영
 - * 예산상 참여인원 목표는 10,000명이며, '21.2월 사업 종료시까지로 참여인원은 계속 증가 (사업기간, '20.3월~'21.2월), 30개 운영기관 220개 프로그램 운영. 참여자 대비 수료인원과 참여자 만족도 조사 결과는 미제출
 - (인식 제고) 참여자 대상 중소기업탐방은 중소기업 인식 등은 크게 제고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었으며, 상대적으로 체계적인 취업 목표 및 구직 활동계획 수립 등의 개선효과는 제고될 여지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됨
 - * 참여자 대상 조사 결과, 중소기업 취업의지가 59.7%→ 94.1%로 상승하였고 진로 및 취업목표 설정 수준(57.8%), 구직활동계획 수립 수준(58.6%)이 향상되었다고 응답(부처 제공자료)

- (취업연계 및 알선) 다른 고용부 사업과 연계 가능하여 취업성공 패키지,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내일채움공제, 디지털일자리, 일경험 지원사업 등 청년취업사업과 연계하여 참여자에게 제공
 - (취업성과) 동 사업 취지는 직접적인 취업연계 목적 프로그램이 아니라서 취업성과는 참여자 고용보험 취득여부로 확인가능. 현재 임금수준, 정규직여부, 지역 확인 등 구체적인 취업성과는 사후 관리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어려움이 있음
- 운영의 적절성 측면에서 위탁기관에 대한 사업실적 평가를 통해 효과적으로 관리·운영하였으나, 운영 실적은 저조하고, 신규 탐방 기업발굴에서의 노력이 아쉬움
- (프로그램 설계 및 운영) 코로나19로 비대면탐방 병행을 허용하고, 프로그램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사업지침을 변경하였음에도 운영 실적이 저조
 - (탐방기업발굴 및 특성) 청년친화강소기업, 우수중소기업 참여가 중요하므로 신규 중소기업 발굴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업종 등도 지속적으로 다양화할 필요.
 - (사업 평가) 위탁기관에 대한 사업실적 평가를 통해 효과적으로 운영관리
- 제도 개선 노력 측면에서, 대상별·지역별로 맞춤형 추가 콘텐츠 개발 및 운영방식 적용 필요
- 코로나 확산 여파로 비대면탐방 병행을 허용, 프로그램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사업지침 개정하여('20.9월) 운영(예, 기업CEO특강, 기업인사담당자의 온라인 멘토링, VR을 활용한 온라인 탐방)
 - 비대면 참여는 현장감이 떨어져서 온라인수업 연장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고 효과가 낮을 수 있어, 코로나19 방역 상황이 개선될 경우 대면·비대면 운영방식의 효과성을 확인 후 체계적으로 운영 필요